

반려동물엔 아낌없이... '펫 산업' 급성장

호텔·카페에 보험·적금 출시...2020년 5조8천억 성장 전망 광주 전용택시 4곳 성업...창업 늘고 직장인 부업 나서기도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애완동물(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인 '펫노미(petconomy)'가 일반화되는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펫팜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시장규모도 커지면서 광주에도 반려동물 전용택시업이 '펫택시'까지 등장했다.

18일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펫택시 업체 '펫어디가'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등 최근 광주에서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관련 창업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3~4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호텔과 카페, 놀이터를 넘어 금융업계에서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보험과 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관련산업이 반려동물 이동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별다른 자격요건 등을 요구하지 않아 창업과정에 어려움이 없고,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펫택시 창업 사례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펫택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주인이 동승하거나 반려동물만 태워 목적지까지 이동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차량전용 시트와 탈취제, 장난감, 간식 등 관련 용품도 갖추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펫택시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기본료 1만원 상당에 1km당 1000원 상당의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 업체가 1인 사업자 형태지만, 평일 3~5회, 주말 5~8회 등 운행이 증가하면서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택시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임에도 최근 반려동물 모임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서 입소문이 번지면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자가차량이 없는 학생이나 여성은 물론,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펫어디가 이창호 대표는 "그동안 반려동물을 데리고 택시나 버스를 탈 때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했지만 펫택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동물병원과 애견미용실



광주에서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펫어디가'의 펫택시 모습. <펫어디가 제공>

방문을 위해 이용하는 것 외에도 반려견과 장거리 외출이나 소풍을 가기 위해 이용하는 고객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펫택시가 인기를 끌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 자신의 차량으로 부업에 나서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애견카페 등에서는 주말과 평일 야간에 한해 반려동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게시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박진석 JS컨설팅 대표는 "반려동물가

구 증가하고 여기에 비용을 아끼지 않고 과감히 지출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펫택시 같은 관련 창업도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9000억원에서 2015년 1조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2020년에는 5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LED 융합산업 미래 모색

광기술원 오늘 서울서 워크숍

한국광기술원이 초절전 발광다이오드(LED)융합산업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연다.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은 LED융합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제5회 LED융합산업 선진화 워크숍'을 19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LED융합산업허브구축사업'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가상(VR)·증강현실(AR), 콰텀닷(QD·Quantum dot), 광통신, 바이오 분야 등 LED융합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이 실시된다.

또 LED융합산업허브구축 사업을 통한 주요 기업지원 실적 발표와 LED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패널토론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영 수석은 '마이크로 LED 산업 연구개발(R&D)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이엘케이(주) 이덕영 수석은 '고기능성 투명전극 필름의 기술이슈와 기술동향'에 대해, (주)라운텍 김보은 대표는 '증강현실-가상현실을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Micro-Display) 기술동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김대성기자bigkim@



농협광주본부 농가 일손돕기

대대적인 영농지원을 펼쳤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대선)는 18일 수확철 일손부족을 겪는 농업을 위해 '광주지역 농협인 한마음 상생행사'를 일손돕기로 대체, 임직원 200여명이 47개 농가를 방문하는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사기 힘든 하이트진로 맥주·소주

노조 파업에 공장 부분 가동...참이슬·하이트 공급 차질

하이트진로 노조가 24일째 파업과 부분 파업 등을 거듭하면서 소주 '참이슬'과 맥주 '하이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부분 파업과 전면 파업 등을 반복하면서 맥주공장 3곳 중 강원 흥천공장, 소주공장 3곳 중 경기 이천공장 등 2곳만 부분 가동되고 있다.

흥천공장과 이천공장에는 비노조원을 투입해 소주와 맥주를 부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공장의 가동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량 생산되는 참이슬도 주로 업소용 이어서 편의점을 위시한 일부 유통 채널은 가정용 소주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 인해 가정용 소주의 주요 판매채널인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빅3'는 최근 각 매장에 참이슬 발주 불가 지침을 전달했다.

노조는 총액임금 7.0%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을 동결하되 격려금 18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최근 4년간 적자액이 1000억원에 이르면서 비상경영상태에 처한 만큼 협조해달라고 노조에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82.91 (-1.46)
- ↓ 금리 (국고채 3년) 1.94% (-0.01)
- ↓ 코스닥 668.42 (-2.09)
- ↓ 환율 (USD) 1129.90원 (-2.60)

9월 고용률 광주 늘고 전남 하락

광주 58.6%·전남 62.4%...일용직 전담비 1만6천명 증가

9월 광주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상승한 반면 전남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9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1000명(1.5%) 증가했다.

산업별로 광공업(13.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1%), 건설업(4.2%), 농업·어업(10.6%)은 증가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6.5%), 전기·운수·통신·금융업(8.1%)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 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38만6000명으로 1만9000명(5.2%), 일용근로자는 4만3000명으로 9000명(15.6%)이 증가했으며 임시근로자는 14만2000명으로 6000명(3.7%)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5000명(18.5%)이 감소했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62.4%로 전년 동월대비 1.0%포인트 하락했으며, 취업자는 94만2000명으로 1만5000명(1.6%)이



감소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8.2%), 건설업(6.5%), 도소매·음식숙박업(2.2%)은 증가하고, 광공업(17.7%), 농업·어업(8.1%), 전기·운수·통신·금융업(9.0%)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 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33만2000명으로 4000명(3.5%),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으로 7000명(15.2%)이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6만1000명으로 1만8000명(10.1%)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전년 동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8000명(28.3%)이 감소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일본 '굿 디자인' 본상

도심형 SUV 컴포트 타이어 '크루젠 HP71'

금호타이어는 2017년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품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상작은 올해 3월 출시된 신제품인 고성능 도심형 SUV 컴포트 타이어 '크루젠(CRUGEN) HP71·사친'으로, 이미 출시 직후인 지난 4월 '2017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해 디자인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는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JIDPO)가 주최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61년의 전통과 공신력을 자랑한다. 이 상은 제품의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평가하며, 수상작에는 'G-Mark'가 부여된다.

금호타이어는 제품, 공간, 미디어, 시스템, 솔루션의 5가지 심사영역 중 운송장비 및 산업시설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정택균 금호타이어 연구기술본부 전무는 "이번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세계 4대 디자인 상(독일 iF, 독일 Red-Dot, 미국 IDEA, 일본 굿디자인)을 2년 연속 석권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이미 고성능 SUV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크루젠 HP71은 내수 및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능 프리미엄 SUV 타이어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